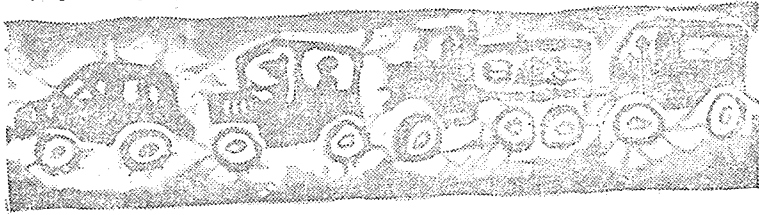


이 달의 주요 뉴스와 치협이 주변



齒科醫療酬價규정 調整案마련 齒科分野 1백 10개 行爲別로 細分 서울齒醫會醫療酬價研究委

醫療酬價 현실화 방안을 위해 다각적으로 재조정을 모색한 서울齒科醫師會 의료수가연구실의위원회(위원장·李柱鳳)는 최근 치과분야 1백 10개 과목에 대한 새로운 일반치과의료수가 조정안을 마련했다.

지난 16일 서울치의회 정기이사회에 보고된 의료수가 규격 조정안에 따르면 포세라인관(베탈)은 현행 8만원에서 9만원 이상 12.5%, 크라운 금주조판은 4만 5천원에서 7만원 이상 55.5%, 합금주조(코발트)는 15만원에서 20만원 이상 33.3% 인상, 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진찰료는 1천 5백원에서 2천 원이상, 상해진단서는 4만원에서 5만원이상, X레이기초촬영은 2천원에서 3천원 이상, 발치수술의 전치는 5천원에서 7천원이상, 난발치는 1만원에서 2만원이상, 매복치치 1만 5천원에서 2만 5천원이상, 치석제거는 1만원에서 2만원이상, 아말감충전은 1면에 7천원에서 1만원이상등으로 조정됐으며 교정부문은 현행보다 훨씬 세분화, 17개 과목으

로 했는데 예방방정치료(전악)는 30만원이상으로 조정했다.

한편 이날 이사회는 일반의료수

가 조정안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개진, 학정방안에 따른 구체적인 일정등 문제는 다시 개론기로 했다.

주요 일반치과의료수가 조정안은 별표와 같다.

醫療酬價規程 調整안

과	과	목	단	위	현	행	조	정	안	
진단과	진찰료 상해진찰료 진단서 상해진단서		1회		1,500	이상	2,000	이상		
			"		4,000	"	5,000	"		
			1통		5,000	"	10,000	"		
			"		40,000	"	50,000	"		
약제과	내복약 도포약 주사피하근육		1일분		1,000	"	2,000	"		
			"		1,000	"	2,000	"		
			1회		1,500	"	2,000	"		
X선과	기초촬영 교합촬영		1매		2,000	"	3,000	"		
			"		2,000	"	3,000	"		
구강외과	◆발치수술 전치 구치 난발치 매복치 구강내치 골절수술 비관혈적정복수술 (악골골절) 관혈적정복수술 치조골정형수술 발치외재소파수술 후치치료 마취료		1치		5,000	"	7,000	"		
			"		7,000	"	10,000	"		
			"		10,000	"	20,000	"		
			"		15,000	"	25,000	"		
			"		5,000	"	10,000	"		
			"		70,000	"	100,000	"		
			"		100,000	"	150,000	"		
			"		30,000	"	50,000	"		
			"		1악전악		100,000	"	100,000	"
			"		1치		8,000	"	10,000	"
			"		1회		2,000	"	3,000	"
			"		국부		2,000	"	3,000	"
			"		전신		20,000	"	40,000	"

치주과	치석제거	전악	10,000 //	20,000 //
	치은치과	1회	2,000 //	3,000 //
	치은소파수술	1/3악	30,000 //	20,000 //
	치은절제수술	1/3악	30,000 //	40,000 //
	교합조정장치	1회	10,000 //	20,000 //
치아고정장치	국소	20,000 //		
소아치과	치료	1치	2,000 //	3,000 //
	발치	"	3,000 //	5,000 //
	생활치수절단수술	"	7,000 //	10,000 //
	보려장치(가철성)	1악	30,000 //	50,000 //
교정	예방교정치료	전악		300,000 //
	교정성교정치료	1악		300,000 //
	월경성교정치료	"		15,000 //
	가철성교정치료	1악		100,000 //
보존과	치료관용급치치료(동통제거)	1치 1회	2,000 //	3,000 //
	발수료	1치	4,000 //	5,000 //
	관용급충전	"	5천-1만 //	15,000 //
	하드레진충전	"	5천-1만 //	15,000 //
	아말감충전	"	13,000 //	15,000 //
	아말감충전	1면	7,000 //	10,000 //
	아말감충전	2면	8,000 //	12,000 //
	아말감충전	3면	10,000 //	15,000 //
	금인레이	(전면)		
	금인레이	1면	30,000 //	40,000 //
	2면	40,000 //	50,000 //	
	이상			
	치근단절제수술	1치	20,000 //	40,000 //
보철과	◆ 크라운	1치	45,000 //	70,000 //
	◆ 금주조판	"	15,000 //	20,000 //
	S. P판	"	80,000 //	90,000 //
	◆ 포세린판(메탈)	"		
	◆ 국부금의치	1악	300,000 //	500,000 //
	◆ 백금주조(코발트)	"	150,000 //	200,000 //
	◆ 합금의치	1치	10,000 //	10,000 //
	◆ 종편악의치		200,000 //	300,000 //
	◆ 전편악의치		150,000 //	180,000 //
	◆ 합금주조상(코발트)	1악	300,000 //	500,000 //
◆ 합금주조상(코발트)	"	150,000 //	200,000 //	
◆ 축서의치	"	100,000 //	100,000 //	
◆ 의치수리 의치상과절	1치당	20,000 //	30,000 //	

위한 醫療費原價 조사작업을 끝 차 수키로 했다.

齒協은 지난달 10일 의료보험수가기준이 一部上同調整되긴 했으나 上同幅이 物價引上幅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데다 일부 項目만이 조정돼 經營압박을 해소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 이의 現實化작업을 강력히 펴 나가기로 했다.

齒協은 의료보험수가기준의 現實化작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우선 齒科醫院의 合理的인 經營이 가능한 의료보험수가의 適正線을 가려내기로 하고 理産性本部에 醫痛費原價의 算出을 容역의 펴키로 했다.

所得標準 낮은率 適用토록 齒協 國稅廳에 所得標準率表 개정建議

齒協은 所得標準率表중 낮은率 적용대상자중 醫療서비스業을 적용시키지 않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 79년도 소득표준율료 제조정작업에서는 醫療서비스業도 장기계속사업자로 인정, 낮은율에 적용시킬 수 있도록 조항을 개정해 줄 것을 國稅廳등 관제으로에 건의했다.

齒協이 지난주 국제청등 관계요로에 건의한 「소득표준율료중 일부 개정」에 따르면 세무당국이 매년소득표준율료를 제정, 소득세추계결정에 적용 산정하고 있는데 78년도 소득표준율료중 낮은율조항 적용대

齒科醫保酬價 현실화 着手 齒協 生産性本部에 原價산출容역

大韓齒科醫師協會는 現行 의료보험수가기준의 現實化 작업을 강력히 추진하기로 하고 이에 대비, 우선 酬價基準의 適正線을 가려내

正信齒科技工所

指導齒科醫師 趙 鏞 起

代 表 金 東 洛

서울特別市·中區 會賢洞 1街 198-1

(中東빌딩 401·402號室)

☎ 776-2308

상자로 장기사업자를 서비스업등 이
발·미용업만을 대상으로 적용하고
가장 많은 시설투자를 요하는 의료
서비스업을 이 조항에서 적용시키
지 않는 것은 큰 모순이라고 지적,

無免許齒科 들팔이行爲 횡행 慶北金泉경찰서, 들팔이 6명 摘發

두면허 齒科의사들이 또다시 고
개를 들기 시작, 각종 의료기구를
설치하고 버젓이 의료행위를 일삼
고 있어 이에대한 단속이 요망된다.

10일 慶北 北部지방 김천·金陵·
尙州·문경·善山·예천 등의 齒科
醫師會에 따르면 무면허 齒科醫들
이 불결하고 졸렬한 시설을 갖추고
자기집 안방서 盛業中인데 대부분

全國 齒科 大學生의 獎學化운동 展開活潑

현재 각치과대학에 제학중인 齒
大生을 대상으로 장학제도를 더욱
확대개선, 전체학생 모두가 장학의
受惠를 받도록 하자는 운동이 치과
의사들에 의해 여러 분야에서 열기
있게 전개되고 있어 의료계의 새로
운 관심사로 등장했다.

이러한 전 齒大生의 獎學化운동
에 앞장서고 있는 全薰植(서울치의
회 조사이사) 崔牧均(서울 성모병
원 치과과장)씨 등은 현행 각 치과
의사클럽에서 치대생에게 지급하는
소규모의 단편적인 장학사업방법보
다 수혜 대상폭을 완전히 개방한다
는 의미에서 멘투멘식, 즉 치과의
사 한사람이 치대생 한명의 장학사
업을 책임있게 커버하도록 하는 방법

79년도 소득표준율표 조정작업에서
의료서비스업도 장기 계속사업자로
인정, 낮은율에 적용되도록 개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의 환자가 영세민으로 산값으로 많
이들 찾는데 이는 구강위생에 위협
을 하는 요인이 된다고 말했다.

한편 慶北 金泉경찰서관내에서만
도 지난 5일 金陵郡 知禮面 上部里
의 文志淵씨(52)가 무면허 齒科行爲
를 하다가 적발되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혐의로 구속
된 것을 비롯 모두 6명을 구속했다.

을 모색, 치과의사로서 새로운 의
욕과 뿌듯한 긍지는 물론 직접 수
혜자와 대화의 폭도 넓히고 인간관
계의 재정립도 할 수 있어 바람직
한 방향이라고 주장했다.

우선 이들은 1차년도인 을 2학기
를 계기로 서울치대생 장학화운동
의 범조성을 위해 치과대학생 시절
장학수혜를 받은 치과의사부터 먼
저 이 사업에 적극 참여토록 유도
하는 일단계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히면서 이 사업이 지속적이고 영
구성을 갖기 위해 학교당과 긴밀
한 연락과 체계있는 협조로 구체적
인 확대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서울치대의 경우 현재 한

학년에 25%정도가 장학혜택을 받
고 있는데 서울치대 동창회를 비롯
치과 의사 경북고등동창회·저경회·
조정부·산악부·축구부 등 치과의
사클럽에서 약간명을 대상으로 장
학금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안炯珪서울치대학장은 이러
한 장학사업의 확대운동은 치과의
사들의 독특한 후의에서 창출된 아
름다운 진풍경의 면모라고 환영하
면서 치과의사들의 총화를 위한 유
대강화와 친목의 가교역할에 새로
운 章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國立齒大 부속病院設置 규정없어 大學設置令에 明文文化건의 齒協, 經企院 文教部 保社部에

齒協은 현재 국립학교 설치명중
치과대학의 부속병원의 설치규정이
없어 학생의 임상교육 및 전공의 수
련등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다고
지적, 대학설치령에 치대부속병원
의 설치를 명문화해 주도록 경제기
획원·문교부·보사부등 관계기관
에 강력히 건의했다.

지난 10일 齒協이 관계요로에 즉
구한 건의문에 따르면 현행 서울치
대 및 사립대학교 치과대학은 부속
병원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조치가
되어 있으나 유독 국립치대만 부속
병원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조치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은 큰 모순이라
고 지적, 교육법 제8조의 규정에
입각한 인재양성은 물론 인명을 다

各種 齒科機器 및 材料

清涼 齒科材料商社

대표 양 해 수

서울시 동대문구 청량리동 444의 2 (청량리역 앞)

전 화 966-1110-968-4466

루는 의료인의 고급기술 연마를 위해 국립대학교 치과대학에 부속병원이 설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齒協은 또 치의학입상교육에 8개과의 독립과 관련 임상시설이 완비되어야 하나 아직 일부국립대학은 법령의 미비로 입상교육에 지장이

있음을 참작, 조속한 시일내의 전처를 촉구했다.

그런데 齒協이 건의한 대학설치 기준령중 개정안은 제3장 제8조 제2항의 가 조항 농·공·의·수·약·수산에 치의를 삽입토록 촉구한 것이다.

였으며 1층과 2층은 병원으로 사용하고 3층부터는 행정실과 학생강의실로 사용하게 되었다.

국민들의 認識증대 위해
統一性있는 口腔保健教育을
齒界輿論 公聽會 座談會 통해
內容定立

서울齒大教授 齒大포함한 醫務副總長制에 強力반발

서울齒大教授들 “齒大教育特殊性에 맞지 않아” 주장

최근 서울大病院이 서울齒大, 서울醫大, 서울대保健大學院을 총괄토록 하는 醫務院 체제로 서울大醫務副總長制 개편을 구상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서울齒大교수들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처사라고 일제히 反撥, 이에 대한 강력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12일 열린 서울치대교수회의는 제8차 서울대병원임시이사회(9월 7일)가 報告論議한 醫務副總長制에 대해 여러 측면에서 검토하고 의견을 개진한 결과 치과대학 본래의 특수성을 고려, 서울치대가 의료원 산하에 절대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는데 의견을 집약했다는 것이다.

이날 교수들은 국립대와 사립대는 운영과 성격상 현격한 차이가 있는만큼 국립치대의 학생교육을 하나의 法人이 어떻게 담당하겠느냐고 심한 우려를 표하면서 전체 치과교육을 커비한다는 것은 무리라고 강조하고 의료원은 어디까지나 학생들의 임상실습장으로서 학교가

의료원에 우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교수들은 현재와 같은 제3진료부의 상황에서도 입상교육에 차질이 점차 표면화되고 있는 실정인데 의료원 신설로 인한 치대발전에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교수회의의 직후 서울치대교수들과 서울대총장 및 교무, 학생처장등본부간부들이 참석한 간담회에서도 이에 대한 의견이 중점적으로 등장, 서울대 高총장은 처음 듣는 일이라면서 병원관계자와 심사속고하여 교수들의 집약된 의견을 충분히 반영토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제 3 진료부(치과)

내부변경 대쪽수리

서울大齒大에서는 지난 7월 31일부터 강의실과 병실의 구분을 새로이 하여, 능률적인 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3층의 교정과 진료실과 소아치과를 1층으로 이전하고 진료중에 있다. 이번의개조로 행정실과 학생교육실이 3층으로 이전하게 되

口腔保健教育의 효율적인 성과를 위해 현재 齒協산하 각 단체들이 여러 모양으로 전개하고 있는 衆口濫發의 구강보전홍보사업에서 탈피, 통일성있는 교육이 전개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최근 개업가 일각에서는 구강의 3개월환인 치주질환·치아우식증·부정교합의 예방이 배개 구강보건교육의 목적이라고 지적, 이러한 교육과 홍보가 효과적으로 전개되고 정립되도록 통일성있는 체계확립이 절실하다고 주장하면서 치과의사 각 개인의 견해와 주장이 가져오는 국민구강보건지식에 대한 혼란과 난해, 인식부족등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 구강보전의 교육과 홍보는 반듯이 통일성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러한 구강보건교육의 통일성확립에는 우선 용어와 개념, 이론이 정확하게 통일되고 정립되어 치과의사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익힐 수 있는 알찬 내용은 물론 여기서 나오는 반복적인 교육효과도 매우 크다고 주장했다.

— 各種 齒科 機材 一切 —

各種 機材 { 賣買 }
{ 交換 }
{ 修理 }

大興齒科機材商社

尹 幸 吉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761(풍년벨딩 300호)

TEL 966—9 5 4 4

機材界(뉴우스)

79년도 機材協定總 여성회관에서 10월 13일 예정

대한치과기계상협회(회장 김재곤)는 오는 10월 13일에 도류호텔 건넌편에 있는 여성회관에서 79년도 정기총회를 갖기로 했다.

한편 이날 개최되는 정기총회에서는 80년도 사업계획을 세우고 뒤이어 임원개선이 있을 예정인데 현 집행부가 그동안 추진해온 사업실적이 회원들로부터 높히 평가받고 있는 점으로 보아 이날의 임원개선에서도 별다른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본다.

현 김재곤 집행부의 중요사업 실

誠實企業으로서 자세 갖춘 삼정치과상사

齒科器材輸入商으로 齒科界에 발을 디딘 三井齒科商社(대표 김철수는 그동안 國內齒科界의 現況과 약에 注力하였으나 앞으로는 좀더 활발한 움직임으로 미국 케미스社の

醫療器工業協同組合 설립

29개 會員社 資本金 1천 9백만원

한국 醫療機工業協會(회장 李煥奎)는 경제발전과 의료보험실시에 따른 국내의료기 산업육성 방안의 일환으로 한국의료기공업 협동조합

적의 살펴보면 ① 치과의사단체와 유대강화로 대외적인 지위가 현저하게 향상했으며 ② 50명 미만의 회원이 100명으로 회원 배가 운동이 성취됐고 ③ 판매가의 정찰제가 점차적으로 높아가고 있으며 ④ 휴일제의 완벽한 실시로 회원들의 복지가 크게 향상되었으며 ⑤ 도·소매업의 확립과 회원 상호간의 치열한 경쟁을 크게 억제시키는 점등 그밖에 여러 업적을 남겨 현 집행부의 유보가 유력시되고 있다.

유닐케어와 교정재료에 중점을 두고 움직일 方針이며 특히 종합병원을 중점적으로 하여 판매전략을 세울 것으로 알려졌다.

(가칭)을 설립하고 인가를 保社部에 요청했다.

醫工協이 나후된 국내의료기공업을 국제수준의 기술향상과 양산체

제를 갖춘 현대시설로의 대체등을 당면과제로 삼고 설립한 「한국의료기공업협동조합」은 29개 회원사로부터 설립자본금 총 1천 9백 20만원을 확보해 놓고 있다.

세계속의 한국의료기공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이는 「한국의료기공업협동조합」에서는 앞으로 영세한 자본의 탈피로 제조기술의 향상과 아울러 원료의 공동구매 공급, 거래질서 확립, 부정불량품 단속등의 사업을 전개키로 했다.

조합에 가입한 회원사는 다음과 같다.

△신용치과산업(주) △남북의료기(주) △남북주사철 △중의기계(주) △대아양행 △세운산업사 △금성이화학 △법진의료기 △삼성X선 △메디칼사푸라이 △한일의과 △태양양행 △신광기업 △태동의료기 △한국삼공산업사 △한국치과 △남북이디아 △소피아(주) △삼기산업사 △영일양행 △술고산업사 △동아X선 △성신X선 △동서의료기 △동은의료기 △국제콘택트 △삼성화성 △세잔합작.

★ ★ ★

★ ★ ★

서울시인정 제44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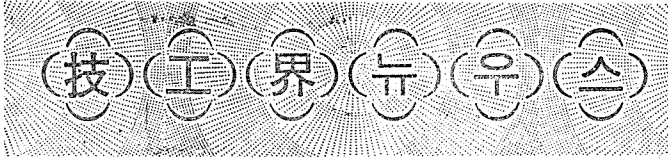


세 창 치 과 기 공 소

대표 권혁문

서울시 용진구 도동 1가 19-18(금정빌딩 302)

전화 22-5970



**醫療技士 定期申告
協會經由 義務化하도록**

사단법인 대한치과기공사협회를 비롯 임상병리사협회, 방사선협회, 물리치료사협회등 4개단체로 구성된 의료기사연합회(회장·韓仲熙) 산하 대표자들은 최근 보사부를 방문 매년 1회씩 실시하는 의료기사 정기신고때 협회경유를 의무화해줄 것을 건의했다.

연합회장과 4개단체 대표들은 이 같은 건의에서 의료인인 경우 이미 의료법시행령을 개정, 내년부터 정기신고서 소속협회를 경유하도록 한 것을 이유로 열거하면서 직종의 성

격이나 단체운영이던 등으로 보아 의료기사도 마땅히 협회를 경유하도록 해, 주어야 할 것이라고 강력히 요청했다.

이같은 의료기사연합회의 요청에 대해 보사부는 건의내용을 충분히 이해하며 어려운 가운데서 단체운영에 힘써온 4개단체장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의료기사법시행령 개정을 검토한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따라 의료기사연합회는 의료기사법시행령 제 8조(신고)의 개정안을 마련 보사부에 올리기로 했다.

**李亞榮會長 등 東南亞 순방
日本學會 참석, 亞州기구협의 위해**

李亞榮大齒技協회장은 日本關東齒科技工學術大會참석 및 東南亞齒科技工士연맹 구성협의를 위한 東南亞 5個國 순방을 위해 4명의 부회장 이사진을 대동하고 9월 11일 출국했다.

李회장의 이번 동남아 순방엔 朴允三, 朱化玉부회장과 全奎昊공보

이사 金幸一자제이사등이 동행했다.

이들 일행은 15~16일 이틀동안 일본 關東치과기공 학술대회에 참석하는 한편 일본 치과기공사회 수뇌부와 동남아연맹 구성을 위한 협의를 벌이며 아울러 韓日양국 협회간의 우호증진을 위한 일련의 협약을 맺을 계획이다.

대표단은 또 「싱가폴」 「방콕」 「홍콩」 대만등지등을 순회하면서 각국 대표자들과 동남아연맹구성을 위한 사전준비와 협의를 할 계획이며 그의 각국의 기공계실태 및 교육제도 등을 돌아본다.

그의 각국의 면허제도와 기공소 및 기공소관계법규등 기초자료도 수집하고 9월말 귀국할 예정이다.

서울市 技工士會 代表團

서치기 회장 박만호씨를 단장으로 한 치과기공사 14명이 일본의 관동치과기공기술대회에 참석키 위해 9월 19일 출국, 1주일간 일본기공업계 현황을 돌아보고 지난 26일 귀국했다. 대표단이 일본에 머무는 동안 동경도치과기공사회와 학술, 기술선교류를 위한 광범위한 협의의를 한것으로 알려졌으며 또한 회조인식 재다짐을 갖었으며, 동경도 회원(40여명)이 특별히 리셉션을 베풀어 주는등 양국간에 우의를 돈독히 하였다.

이들 일행은 일본의 치과기공업계, 제조업계를 시찰하였으며, 한편 여가를 활용 일본각지의 명승지도 관광, 어느때 보다도 뜻깊은 방문이었으며 큰성파를 거두고 귀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경도 치과기공사회 초청으로 구성된 대표단은 당초 14일 출국예정이었으나 관

서울시 인정 제39호

조양 치과기공소

代表 金 幸 一

서울시 동대문구 제기 1동 483

전화 (966) 6 8 3 4

제기관의 협조결여로 난항을 거듭, 19일 출국하기까지 많은 고충을 겪은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서울市 技工士會 定期總會

서울시 치과기공사회(회장 박만호)는 금년도 정기총회를 오는 10월 27일 서울치대 대강당에서 개최한다.

9월말 현재 서울치과기공사회의 임회회원은 4백24명으로 大齒技協 산하 전국11개시도회의 총회원 8백14명의 절반이 훨씬 넘으며 4년전인 75년도에 비해 회원수는 2배로 늘어났으며 전체회원 가운데 20%인 80여명이 치과기공소를 개업하고 있다.

大齒技協 15次定總 11月15日 開催

— 세종문화회관 대회의실에서 —

대한 치과기공사협회는 79년도 전국대의원 총회와 전국치과 기공소 대표자총회, 치과기공사 새마을 봉사단 발대식을 오는 11월 15일

서울시내 세종문화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대한치과 기공사협회는 곧 이사회를 소집, 구체적인 행사일정 및 세부계획을 편성할 계획인데 치과기공사 새마을 봉사단 발대식을 15일 오전 세종문화회관 대회의실에서 갖기로 이미 구체적인 계획이 짜여져 있기 때문에 같은날 오후에 치과기공소 대표자회 정기총회와 대치기 대의원 총회를 계속해서 열자는 기본방침을 설정해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제 1 회 齒技學會 학술집담회 엠베서드 호텔에서

대한치과기공사협회 치과기공학회(회장·권혁문)는 9월 10일 오후 5時 엠베서드호텔 그랜드 볼룸에서 회원 및 내빈 다수가 참석한 가운데 제 1회 학술집담회를 성대히 가졌다. 기공학회에 소속되어 있는 서울 회원 및 지방회원과 관심있는 비회원이 참석한 이날 집담회에서 대한임프란트학회 부회장 김홍기

씨의 임프란트와 치과기공이라는 연제로 슬라이드를 통한 입체적인 강의를 했고 세계적인 치과재료 메이커인 Ney社에서 리차드 베스트씨의 Color of Dentistry라는 제목으로 슬라이드를 통한 시청각 교육도 있었다.

또한 이날 집담회에서는 치과기공학회가 발간 회원들의 관심속에 배부되었다.

교육후 8시 30분부터 있던 리셉션은 영진치계 후원으로 진행되었다.

앞으로 보다 많은 회원의 참여속에 기공학회의 발전을 바란다.

수해의연금 모금운동 전개

서치기회(회장 박만호)에서는 태풍 주디호의 피해지구인 영·호남 지방의 수재민들이 실의에 빠져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국민들의 따뜻한 손길을 기다리는 수재민들을 돕자는 범국민적인 운동에 적극 호응하여 산하회원들에게 의연금 모금운동에 적극참여하여 주기를 바라고 있다.

정 성 치 과 기 공 소

대표 정 동 수

서울 중구 남대문로 5가 12-4(향남빌딩)

전화 22-2217